

교회소식

1. 오늘은 부모 주일입니다. 자식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사신 부모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예배 후에 인도자 성경공부가 있습니다(느헤미야 실, 1시 35분).
3. 2021년 전반기 공동 성경 읽기가 11주 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생활화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범위: 신약 사도행전 1장-21장, 매일 3장)

공동 성경 읽기 일일 점검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행1-3장	4-6장	7-9장	10-12장	13-15장	16-18장	19-21장

읽음 ○ 덜 읽음 △ 못 읽음 x

4. 교회 창립 22주년이 다가옵니다(7월 18일). 선교회 혹은 공동체별로 팬데믹 상황에 맞는 의미 있는 창립 주일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5. 매주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6. 성전 이전 계획에 마음을 모아 주시고 의견이 있으면 꼭 알려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또 성전 이전이 우리 신앙에 진보를 가져오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7.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가 오는 12일(수, 미국 시간 화요일) 영상으로 개최됩니다.

M A Y

교회사역일지

5월 2일(주일) 자녀 주일
5월 9일(주일) 부모 주일
5월 23일(주일) 성령 강림 주일
5월 26일(수) 그루터기 주관 예배

기도순서

5월 16일(주일) 김병진 목사
5월 19일(수) 신장우 집사
5월 23일(주일) 박병민 장로
5월 26일(수) 이기중 권사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김창조, 김영아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부모 주일

23권 19호 2021.05.09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 찬양 예배) 이성훈 목사

찬 양	Praise		주일 찬양단
예 배 로 부름	출애굽기 20:12, 요한복음 4:24		인도자
✧ 찬 송	40장		다함께
✧ 찬 송			다함께
✧ 찬 송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579장		다함께
대 표 기 도			정덕수 장로
성 경 봉 독	에베소서 6:1-3		인도자
찬 양 대 찬 양	선을 이루시리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태한 목사
특 송	요게벳의 노래		청년부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공 동 성 경 읽 기			다함께
✧ 응 답 송	171장 (1절)		다함께
✧ 축 도			이태한 목사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청년 찬양 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 예배 7:30 pm
금요 기도 7:00 pm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훈
전 도 사 김 양 이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케이프타운) 김현태 선교사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선교 동역자들에게

Covid19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역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 4월 한 달을 또 무사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 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차고 넘치는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회에 불만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남아공 명문 케이프타운 대학에 화재가 나서 도서관 건물 및 6동이 소실되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으나 인재로 인한 사고여서 그 아픔과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사역 소식을 나누어 드립니다.

고난주간 저녁예배 / 성금요일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고난주간 온 성도들이 한 주간 한 끼씩 금식을 하며 저녁 예배를 드렸고 성금요일 오전에는 예배를 오후에는 예수 영화를 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활절 칸타타 및 성찬식: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더 큰 감동으로 부활 축하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동부 성가대가 부활절 칸타타를 열심히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온 성도들이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찬식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였습니다.

선물 나눔: 선한 사마리아인 재단(빌리 그래함)에서 지난해 크리스마스 아동부 선물을 보내 주었는데 Covid19로 인해 제한이 있어 그동안 충실하게 출석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번 부활절에 선물을 나누었고 교회 성도들에게는 생필품을 한 팩씩 나누며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부쿠 패밀리 모임: 이정욱(이하영) 선교사님께서 전도와 양육을 고민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계발하여 사역에 접목시켜 큰 성과를 거둔 부쿠 패밀리 모임을 우리 교회에 활성화시켜 전도의 장을 열기 위해 내외분이 오셔서 의식 있는 성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2. 불안한 치안이 호전되고 팬데믹 중에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기	도	Prayer	서영애 집사
성	경	Scripture	디모데전서 4:12-16
설	봉	Sermon	성숙함을 나타내라
	교		이태한 목사
찬	송	Hymn	545장
주	기	The Lord's Prayer	다같이

나눔란

2021년 5월 2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실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창세기 20:1-8

한번 넘어진 것은 실수이지만 두 번째 넘어진 것은 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짓말을 두 번이나 했던 아브라함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1) 경건한 신앙인도 실패하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예전과 똑같은 거짓말을 했던 이유는 그릇된 습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할 만큼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하고도 동일한 유혹에 빠지며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솔로몬도 일천 번제를 드린 지혜의 사람이었으나 노년에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 이로다”(고전 9:27) 고백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것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막상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드리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신앙은 현실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작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고전 10:12).

2)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에게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20:9) 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에게 책망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멸망 당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하신 말씀을(눅 17:1-2) 기억하며 어떤 불신 자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만 세상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찢려 “우리가 어찌할꼬” 외치며(행 2:37)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맞아 배가 표류하며 난파되고 있을 때에도 바울 때문에 그 배의 모든 자들을 다 살려 주셨습니다(행 27:24).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3) 실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 없는 아비멜렉에게는 경고를 주셨지만(20:3) 아브라함은 보호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20: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창 12:3, 15:18, 18:14).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자녀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하셨기에 은혜로 보호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넘어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려면 아브라함처럼 먼저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며(20:13) 나만의 감춰진 제한구역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요일 1:9)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이 충분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거룩함과 경건을 마음껏 훈련하기 위한 성전이 예비 되도록.
2.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능력 있는 성도가 되도록.
3. 병 중에 있는 성도에게 치유가, 열방의 선교사들에게 안전이 있도록.